

문제되는 닭질병과 방역관리(完)

질 병

3) 추백리균 박멸작업을 위한 제언

가) 세대별 추백리 검색작업

추백리균의 박멸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검색 도태 작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자기 종계에서 생산되는 실용 초생추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종계의 추백리 보균제는 검색 도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추백리 검색 도태를 광범위하게 종계 전체에 적용해서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즉 종란을 생산하면 무조건 종계라 해서 같이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대별(순계, 원종계, 종계, 실용계)특성과 추백리 전파의 특징을 고려해 볼때 추백리균의 박멸작업은 원종계에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①순계(PL)는 추백리 검색에 관한 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순계에서 생산되는 원종계는 판매하지도 않거니와 순계를 가지고 육종을 하는 육종회사가 추백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육종을 한다면 원종계를 거쳐 생산되는 종계, 실용추의 능력에 있어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②종계는 이제 한번의 입추 계군수수가 과거의 2천~3천수에서 5천~1만수로 늘어났다. 따라서 전 종계군을 추백리 검색작업을 하려고 하면 머리속에 크나큰 작업이라는 부담이 먼저 앞서게 되며 검색후의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도 못하고 몇가지 의문점이 있는 종계업자는 더욱 추백리 검색작업이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검색 작



오 경 록

이학박사, 천호부회장 상무
본지 편집위원

업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표 1의 예와 같이 종계군의 크기에 따라 표본수수를 정하여 추백리 검색을 실시하고 일정을 이상 검출될때 전 계군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밖은 모두 검색)

물론 일정율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 실정에서는 어느정도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에서는 종계장에 대해서는 추백리 검색작업시 표본수수를 정하여 농장과 같이 작업하고 감독한다면 적어도 현재와 같이 인원과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검색후 확인하라는 것은 11월호에 기술한 바에 따라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작업시 같이 하거나 적어도 일주내에 확인해야 한다.

검색후 보고하면 통상 몇주후에 관계기관에서 직원이 시간을 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계는 산란중이어서 확인작업이 무리인 것이다. 남의 사업이야 어쨌든 확인만 하면 됐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번 당하면 다음번에 보고 조차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③원종계(GPS)는 추백리군을 박멸하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중간 차단목이라할 수 있다.

원종계는 전 계군을 검색함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에 따라서는 2번, 3번도 하여 보균계의 검색도 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원종계만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보다는 훨씬 쉽고 확실한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가)원종계수수의 대부분이 수입계이므로 수수와 소재의 파악이 정확하다.

(나)국산원종계와 수입 원종계를 합쳐도 10개 이내 원종계장과 연간15만수(4계통)이내의 원종계로 지도 관리 수수가 적다.

(다)원종계의 추백리 검색 관리가 철저히 될수록 종계의 표본 추백리검색은 효과적일 수 있다.

(라)원종계의 전 계군이 도태할 정도로 문제가 될때 순계까지 소급해 보균계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된다.

표 1. 95% 신뢰도를 갖기 위한 샘플량

한군의 사양수수	샘플채취수	한군의 사양수수	샘플채취수
100	95	1,000	258
200	155	2,000	277
300	189	3,000	284
400	210	4,000	287
500	224	6,000	291
600	235	8,000	293
700	243	10,000	294
800	249	20,000	296
900	254	50,000	297

(미)원종계 관리만 철저히 하면 종계 생산량 및 실용계의 생산량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히)원종계에서의 추백리 퇴치작업이 성공한다면 종계에서의 추백리 퇴치 작업은 훨씬 쉽게 진행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추백리 퇴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모든 종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업무 과다로 인한 확인 감독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원종계에 적극적인 관리 지도로서 추백리 검색시의 합동 작업과 추백리 보균율을 줄이기 위한 문제제기와 협의를 통하여 보균율을 줄이기 위한 제 업무의 실행을 합동을 펴 나간다면 추백리 퇴치의 길이 먼 것만도 아닌 것이다. 원종계장을 소유한 종계업자는 기술적인 문제의 수용 자세와 대화수준은 충분히 갖추고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 제시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나) 원종계장의 의무

추백리군의 퇴치를 위해서 검색도태 이외에도 원종계장에서 지켜야할 사항이 많겠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경 및 관리조건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① 원종계농장에는 원종계 이외의 닭(종계, 시

협계등)이 없어야 한다.

② 원종계의 종란(중계)전용의 부화장이 있어야 한다.

③ 가능한 평사 사육은 금하고 니플 급수기를 설치한다.

④ 초생추 감별시 보균제와의 접촉 가능성이 많음을 유의한다.

⑤ 정기적으로 전용 부화기의 발생기내의 면모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출을 시행한다.

⑥ 정기적인 파리의 살충작업과 구서작업 실시

⑦ 인공수정시 보균제를 통한 접촉 전염을 예방한다.

⑧ 케이지 구조가 너무 겹쳐있어 상부닭의 똥을 아래에서 뒤집어쓰는 것이 없도록 한다.

⑨ 특히 평사 사육에서 카니발리즘, 쥐에 의한 창자노출 등으로 보균제의 내장이 밖에 나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한다.

⑩ 항생제 및 항균제 또는 생균제의 선택을 전문가와 상의한다.

다) 현재의 추백리균에 대한 대책

앞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을 기술하였으나 아무리 좋은 대책을 거론한다고 해도 추백리 퇴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는 종합적인 방법 제시와 그에 대한 종계업자의 신뢰성이 앞서야 한다.

추백리 퇴치 작업은 각자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종계업자가 한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체가 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계인은 추백리 균의 박멸작업을 위하여 종계검색 도태만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통제와 감독으로서가 아닌 종계업자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고 관계 기관도 같이 노력하는 종합 박멸 계획을 만들어 내야 한다. <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

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육성계전문사육장

삼 정 농 원

중추, 대추 (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농 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612번지

전 화 : 62-4339(DDD 0347)

※ 간이연락처 : 퓨리나사료 광주서비스업소(2-2558)